

위드코로나시대 미드나잇인 순천

청정·힐링·가족여행 가능한 야간관광 통해 머무는 순천관광 야간 콘텐츠 발굴로 체류시간 늘려 지역경제 활력 '기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 및 경기 부양 방안으로 지난 6월 12일 '2020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하고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20년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야간관광 지출액에 따른 관광객 직접 지출 효과는 3조 9천억 원, 고용효과는 4만 명, 생산유발효과는 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 야간관광의 개념과 해외사례

야간관광이란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 콘텐츠, 축제 등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이 야간경제와 직결된다. 이미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가 비수기 타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야간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2016년에 야간경제위원회를 조직하여 야간을 관리 운영하는 야간시장(mayor)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경제구역도 선정하였다.

미국 뉴욕은 야간문화 주도 관리 부서를 두고 '영원히 잠들지 않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야간관광으로 1인당 약 400~500위안(7~8만원)을 사용하며 야간공연, 야경에 대한 수요가 높다.

추절기간 동안 야간관광 경험은 92% 수준이다.

▶ 야간관광을 주목하는 이유

이처럼 야간관광에 주목하는 이유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밤에 놀고, 운동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야간형 인간'의 증가로 심야 소비가 늘고 있다.

지속적인 1인당 관광지출액 감소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이기도 하다. 이는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숙박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업활동을 촉진하며 코로나로 위축된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증진시키기도 한다.

야간관광의 매력은 한정된 낮시간을 확대시키며 낮시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야간관광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 의존형으로는 전망 타워, 미술관, 박물관 관람 등이 있으며 경관 관람형으로는 야간경관, 불꽃놀이, 야간 축제 등이 있다.

체험 활동형으로 공연, 콘서트, 야시장, 문화제 야행, 시티투어가 있으며 유흥형으로 노래방, 나이트클럽, 실내스포츠, 사우나 등이 있다.

정부에서도 야간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 야시장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평 강동 야시장, 전주 남부 야시장,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등이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4월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 코로나19로 주목받는 순천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또한 번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국외보다 국내 근거리 여행으로, 밀집·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레저 및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일상관광을 즐기면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코로나에 안전한 청정지역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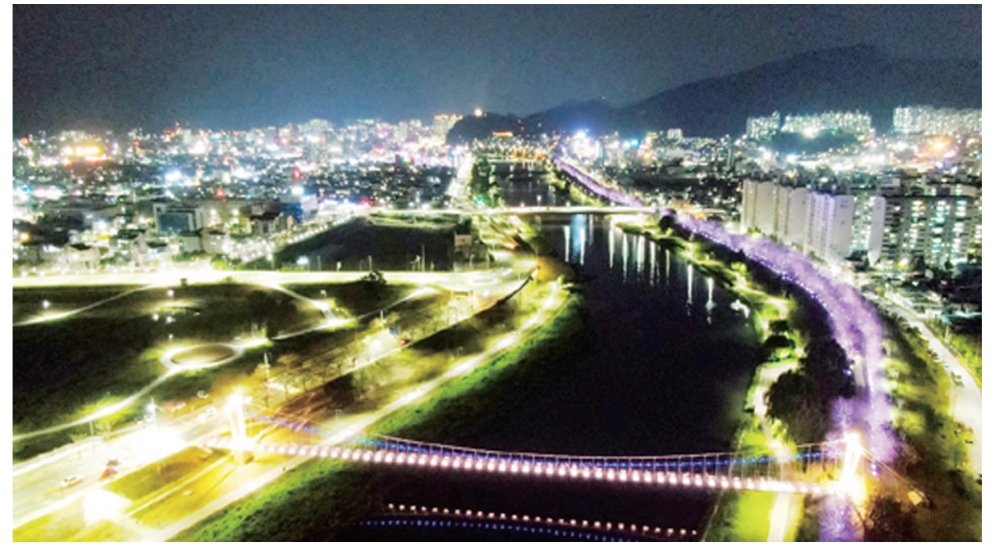
순천시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생태문화관광 도시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지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놀이시설을 제외하고 61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최고의 야외 생태 관광지이다.

이외에도 노을이 아름다운 와온해변은 캠핑과 차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은 힐링 관광지로 꾸준히 방문객이 찾고 있다.

올해는 예기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 수는 10월 기준 31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62% 급감하였지만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접어들면서 순천만 습지는 평일 6천여 명, 주말에는 2만여 명이 찾고 있다.

앞으로도 그동안 억눌린 관광 욕구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코로나로 인해 바뀐 관광 트렌드로 순천과 같은 청정, 힐링, 가족여행이 가능한 지방도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는 꿈의 다리에서부터 출렁다리, 용당교 일원 6km에 이르는 동천 교량과 벚꽃 산책로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 순천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

순천시는 이와 같은 야간관광의 수요 증가와 위드(with)코로나시대에 맞추어 머무는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야간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다.

먼저 2018년도부터 추진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천 야간경관사업을 들 수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야간개장을 위해 동문과 서문 WWT 습지 주변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꿈의 다리에서부터 출렁다리, 용당교 일원 6km에 이르는 동천 교량과 벚꽃 산책로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내년에는 미설치 교량 5개와 벚꽃 산책로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동천 저류지에는 24만 5000㎡의 생활 숲과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한다.

다목적 광장은 야시장과 플라마켓이 들어선다. 순천시는 야시장을 야외 숲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 내에 있던 야시장의 밀집과 밀폐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 3월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 클린 야시장 만들기를 위

한 쓰레기 처리와 친환경 용기 사용, 오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동천 야간경관사업과 인근 야시장 조성은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공간이자 사업이다.

또한 내년에는 드라마촬영장 재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하여 야간 체험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의 거리에서 매년 개최하는 문화제 야행 이외에 순천 대표 문화콘텐츠도 제작한다. 2023박람회 기간 상설 공연을 목표로 현재 작곡 소재를 공모하고 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1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관건이다. 순천시는 대규모 호텔보다는 소규모 가족형 호텔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 살기나 농촌체험, 산사체험, 숲 체험 등 생활형 체류상품을 개발하고 장기간 짐거형 여행자를 위한 세컨드하우스나 장기임대방안도 강구한다. 야외 레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캠핑, 차박 등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러한 야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늘려 야간관광과 주간관광과의 연계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류시간도 늘리고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 길 펜티는 밤 12시 종이 울리면 파리의 거리에서 마차를 탄다. 주인공 길은 탄 마차는 1920년대 파리로 주인공을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헤밍웨이, 피카소, 달리 등 예술가를 만난다.

'미드나잇 인 순천'이 우리를 예술의 황금시대로 데려가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함께 하는 이와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포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